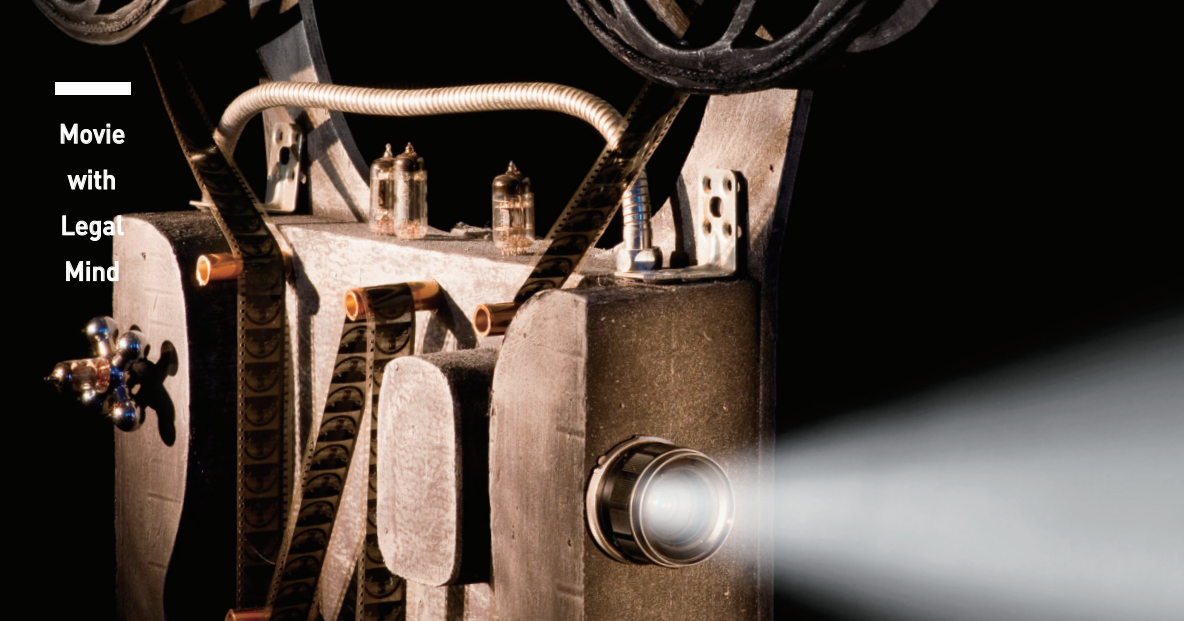




불평등을 바라보는 시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김주연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직원

스칼렛의, 스칼렛에 의한, 스칼렛을 위한 영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처음 본 것은 열 몇 살 무렵 텔레비전에서 하는 주말의 명화에서였다. 미국 남북전쟁 전후의 남부를 배경으로 스칼렛의 사랑과 삶을 그린 영화로, 필자는 완전히 스칼렛에 푹 빠져버렸다.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다. 스칼렛은 애슐리를 사랑하는데, 애슐리가 멜라니와 결혼하자 화가 나서 찰스와 결혼한다. 그러나 남북전쟁에서 찰스가 죽고 스칼렛은 동생의 약혼자인 프랭크와 결혼하나 프랭크도 죽는다. 마지막으로 스칼렛은 레트와 결혼하나 결국 그와 헤어지며 영화는 끝이 난다. 이것만 보더라도 스칼렛의 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다. 매력이 없고서 어떻게 세 번이나 결혼할 수 있겠는가.

스칼렛은 돈을 구하려고 레트가 걱정되는 척 거짓 연기를 하기도 하고, 동생에게 새 애인이 생겼다는 거짓말로 동생의 약혼자를 가로채기도 하는 나쁜 여자지만, 그럼에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매력을 지녔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애슐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북군의 공격으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어

떻게 보면 자신의 연적인 멜라니를 끝까지 지켜내는 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졌는가 하면, 급한 성격을 숨기지 못하고 다 내보이는 허술한 면도 가졌다. 찰스의 죽음으로 미망인이 된 스칼렛이 거울 앞에서 검은 상복을 입은 자기 모습을 불만스럽게 바라보다, 검은 모자 대신 깃털이 화려하게 장식된 모자를 바꿔 쓰고는 흡족하게 웃는 장면이 있었는데, 유모가 이를 보고 말리자 스칼렛이 하는 말이란 “난 아직 과부가 되기엔 젊단 말이야. 난 슬프지 않은데 왜 슬픈 척 해야 하지?”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천진난만한 스칼렛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는가. 또 레트가 떠나는 마지막 장면에서 스칼렛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흐느껴 울다가 언제 울었냐는 듯 울음을 그치고는 눈을 반짝이며 “어쨌든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생각하자. 타라로 가면 생각이 날 거야.”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화수분 같은 에너지는 오직 스칼렛만의 것이었다. 이렇듯 여러 매력들이 펄펄 끓는 용광로 같은 스칼렛에 필자는 눈과 마음을 빼앗겼다. 이것이 내가 이 영화를 꽤 오랫동안 “스칼렛의, 스칼렛에 의한, 스칼렛을 위한 영화”로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스칼렛 뒤에 가려진 소외된 흑인들을 마주하다

그런데 최근 우연히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이전과는 다른 장면과 대사들이 내 마음에 와서 박혔다. 처음 눈에 밟힌 장면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영화 초반부에 나온 파티 중간의 낮잠 시간을 비춘 장면이었다. 스칼렛의 유모 매미가 “기품 있는 가문의 아가씨들은 다 낮잠을 잔다.”고 말한 대사를 통해 유추해보면, 당시 미국 남부에서는 파티 중간에 여자들이 낮잠 일정을 갖는 게 전통처럼 행해진 모양이다. 방안 곳곳에 백인 처녀들이 파자마 같은 것을 입고 편하게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녀들이 덮지 않도록 기껏해야 예닐곱밖에 안 돼 보이는 어린 흑인 소녀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다 큰 처녀들이 좀 더 쾌적하게 숙면할 수 있도록 아직 다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이 자신들의 상체만한 부채를 든 팔을 연신 아래위로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들 간의 차이는 오직 피부색 하나였다. 필자는 끝없이 돌아가는 불평등의 작은 수레바퀴를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저 아이들은 별일이 없는 한 평생 백인 아씨의 시중을 들며 살아갈 터였다.



부채질 하는 흑인 소녀 (출처 : 1939년 개봉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캡처)

왜 그 전에는 무심결에 지나쳤던 이 장면이 눈에 밟혔던 것일까. 아마도 얼마 전에 첫 아이를 낳은 것이 나로 하여금 저 작은 아이들에게 연민의 감정을 갖도록 하였고, 이 연민의 감정이 기폭제가 되어 스칼렛 뒤에 가려져 있던 흑인들을 마주하게 했던 것 같다. 흑인들에 눈을 돌리니 영화의 풍경이 전혀 달라졌다. 흑인들은 하나같이 백인의 시중을 들거나 백인을 두드러지게 하는 역할에 머물렀을 뿐, 어느 극중 인물 하나 고유의 성격과 주체적인 의도를 가지지 못했다. 그들은 거기 있었지만, 존재한다고 할 수 없었다.

사실 이러한 인종 간 불균형은 영화의 오프닝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남북전쟁 전의 남부 그곳은 신사도와 목화밭으로 상징되는 곳. 이 아름다운 지방은 기사도가 살아있는 마지막 땅으로 용감한 기사와 우아한 귀부인, 그리고 지주와 노예가 함께 존재하는 곳.



남북전쟁에 참전하는 빅샘과 인사를 나누는 스칼렛
(출처: 1939년 개봉작 <비람과 함께 사라지다> 캡처)

책 속에서나 있음직하고 꿈처럼 기억되는 과거가 오늘로 살아있는 곳. 문명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었다.”라는 말로 영화는 시작한다. 영화는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남부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향수의 가운데에는 흑인 노예들이 일군 목화밭과 이 목화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우아하게 살아가는 백인들, 즉 백인 지주와 흑인 노예의 공존이 있었다.

지배당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흑인들의 언행을 영화 곳곳에서 맞닥뜨렸다. 예컨대 스칼렛 집안의 노예 빅샘이 남북전쟁에 참전하러 가면서 스칼렛에게 한 말이 그랬다. 그는 “남부가 우릴 원하니 우린 참호를 파야죠. 양키를 무찌르고 올게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주인을 위해 당연한 일을 하러간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노예 해방에 대하여 남부는 반대, 북부는 찬성 입장이었는데, 노예가 남부의 승리를 위하여 참전하는 것도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또 멜라니 집의 흑인 하인이 집 뒷마당에서 백인 주인 식탁에 올릴 닭을 잡으며 “백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어야지.”라고 혼잣말하는 장면도 그랬다. 그들은 백인들이 보지 않을 때도 언제나 충성했다.

스칼렛의 유모 매미와 몸종 프리시도 있었다. 매미는 백인 귀부인이 지켜야 할 생활규범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스칼렛에게 이를 항상 주지시켰다. 가령 몇 시가 되기 전에는 가슴이 파인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남들이 보는 데서는 밥을 새처럼 조금만 먹어야 된다고 하는 식이었다. 스칼렛의 어머니 엘렌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다 집에 늦게 들어오면 “저녁도 안 드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간호하러 다니시다니 … (중략) … 쓰레기 같은 것들이 아가씨를 지치게 하는군.”이라고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매미에게는 스칼렛 집안이 곧 자기 자신이었으며 흑인으로서 정체성은 전혀 없었고 바깥의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주인을 힘들게 하는 쓰레기 같은 자들일 뿐이었다. 매미 역의 여배우는 흑인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나, 한편에서는 굴욕적인 연기로 흑인들에 대한 편견을 심어줬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몸종 프리시는 멍청하고 게으르며 겁이 많은 캐릭터로 표현되었다. 프리시는 험난했던 멜라니의 출산을 스칼렛 옆에서 돕는데, 프리시가 한 일이라곤 천하태평하게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무서워서 벌벌 떨거나 레트에게 자신이 한 일을 무용담으로 꾸며 과장해서 말하는 게 전부였다. 사실 프리시가 영화에서 실제로 한 역할은 스칼렛의 기지, 강인함, 용기를 더욱 돋보이게 해준 것이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 영화가 인종 간 갈등을 주제 전면으로 내세운 다른 작품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인종 간 갈등을 표현했다고 느꼈다. 영화 속 불평등이 의도된 설정이라기보다 다른 이야기를 하던 중 우연히 새어나온 당시의 실제 모습이자 사람들 무의식의 반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인 1856년 당시 흑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그대로 보여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흑인 남성이 지주에게 돈을 주고 자신을 풀어달라고 제기한 소에서 연방대법원은 원고가 흑인이어서 시민이 아니므로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과 함께, 인류 역사에서 흑인은 열등한 족속이어서 노예가 되는 것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됐다는 실로 어이없는 내용의 판시도 덧붙였다. 불과 150년 전만 하더라도 오로지 생물학적인 특성으로 어떤 삶을 살지가 결정됐던 것이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러한 부당한 처우를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다. 필자는 약간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지금의 세상도 150년 후에 바라보면 너무도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게 아닐까.

불평등을 지나치지 않는 예민함의 가치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뜻하지 않게 인종차별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불평등을 지나치지 않는 감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애초에 텍스트를 만들 때는 그 안에 차별을



유모 매미(상)와 몸종 프리시(하)
(출처 : 1939년 개봉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캡처)

답아낼 의도가 없었지만, 나중에 텍스트가 소비되는 과정에서 관객이나 독자가 차별의 부당함을 마주하는 경험은 일면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의 불평등 현상도 거의 대부분 애초부터 의도된 것은 아닐 것이고, 또 미리부터 “나 불평등하오.”라고 광고하며 등장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으로 국민의 평등을 보장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도 금하고 있는 현대에는 차별의 양상이 예전보다 더 비가시적이고 은근하고 교묘할 것이다. 그렇다면 ‘불평등을 지나치지 않는 감각’은 어쩌면 대단히 중요한 미덕일 수도 있겠다. 이는 일상 속에 숨은 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사실상의 첫 단추이다. 그리고 이런 감각들로 숨어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찾게 된다면 분명 그만큼 더 나은 세상으로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불평등하다고 할 만한 게 어떤 것이 있을까. 가령 구직자의 성별, 가족 사항, 사진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우리 주변의 흔하디흔한 이력서는 어떨까. 어떤 이들은 고용주 입장에서 이와 같은 정보 요청은 그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이 이유 없는 차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이는 단순히 고용주의 권한 문제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채용 시 성별, 나이, 혼인 여부, 용모 등에 의한 차별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대다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차별 금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명시적인 사회 동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력서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것을 다른 문제로 치부해버린다. “이력서는 원래 그런 정보를 채워 넣으라고 있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명백히 이력서의 이와 같은 정보는 채용 시장의 불평등을 조성하고 고착화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사진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해 9월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별 인사 담당자 5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0%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입사지원서 사진을 평가한다고 대답했고, 200여 명에 달하는 인사담당자가 사진을 보는 이유에 대해 “외모가 준수하면 호감이 가서”, “외모가 경쟁력이라서”라고 대답했다.¹⁾

여기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사업주가 사진의 외모를 본다면 이는 못생긴 자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사진의 첨부는 금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주가 현명하게도 사진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면 굳이 사진의 첨부를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나는 얼굴을 통해 인성을 본다”는 용한 사업주가 있으면 면접에서 확인하면 된다. 게다가 사진은 구직자의 성별, 나이, 인종 등도 드러내므로, 사진이란 존재는 이래저래 채용의 공정성만 해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력서에 사진을 첨부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력서에 인종, 성별, 나이, 출신국가 등을 기입하는 난도 없다.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묻는 것은 고용상 차별행위

1) 『Story of Seoul』, 2015. 2. 28. 박주영, “이력서 사진, 언제까지 붙여야 하나요?,” [http://www. storyofseou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4](http://www.storyofseou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4)(검색일: 2015. 5. 14.)

라고 추정되므로, 고용주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면 스스로 차별행위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차별적 요소로 취급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궁금해 하는 이력서에 대해 여전히 관습적이고 둔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이 부족해서라기보다, 현상 이면의 불평등을 읽는 감각이 예민하지 않아서이다. 갑의 이익과 편리에 따라 만든 제도를 을의 시각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익숙지 않아서인 듯하다. 여성이라거나 나이가 많거나 용모가 별로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리한 것이 차별이라면, 이러한 정보가 고용주에게 건네지는 선행적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적어도 이력서 제출 단계에서 이러한 정보가 제한 없이 제공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비단 이력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에게 ‘불평등을 보는 감각’을 선물해준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밖에 나가보니 길에 턱이 너무 많았다. 아기가 금방 크니 한시적인 불편함이겠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혼자서 어디를 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걷던 거리에서 불평등한 현상들이 보였다. 감각의 힘은 이런 것이다. 익숙한 것에서 고치고 싶은 것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기를 기대해본다.